

## [9] 임명제

바람이 유난히도 불던 1911년 3월 3일 아산군 염치에서 태어나셨다.

임명제의 휘는 영상, 자는 수일, 호는 매사였다.

아버지 화자는 학식과 덕망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이 많았다. 추위에 떨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자기는 못입고 못 먹더라도 도와주는 성미였다.

어머니는 부사의 따님이셨다. 임명제는 이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커가면서 복의가 단정했고 남자답고 의젓하게 행동했으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크게 될 인물이라며 칭송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는 효자로도 소문이 나 있었다. 흔히 사람들의 말속엔 효자도 결혼을 하여 아내를 얻게 되면 불효자가 된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는 결혼한 후에도 부인과 함께 더욱더 잘 모셨다.

그는 1935년에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마치고 충청남도 행정직에 근무했다. 1950년에 연기군수를 지내시고 1960년에 천안군수를 역임하시는 동안 그는 모든일에 충실했고 청렴결백하였다. 늘 국민의 입장이 되어 무엇이든 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통령 훈장까지 받으신 바가 있다.

그가 아산군 군수로 있었을 때다. 6.25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도로는 손수레가 왔다갔다 할 정도였다. 그가 염치에 좀 가신다고 했다. 염치면민들은 군수가 오신다고 몹시 좋아하며 들뜬 기분들이었다. 사람들은 군수가 오시면 이 도로좀 어떻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염치에 오셨다. 그는 새삼 놀랐다.

"도로가 이렇게 좁을줄은 몰랐군. 아 면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는 즉시 돌아왔다. 생각한 끝에 도로를 넓히라고 했다. 면민들은 하루이틀씩 번갈아가며 이 도로 사업에 나갔다 그 댓가까지 나왔다. 쪼들기는 판에 사람들은 다행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흡족해 했다. 도로가 넓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금도 그 길을 걸노라면 그분의 노고가 새삼 생각이 나곤 한다. 이렇게 그는 이곳뿐만 아니라 그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면 개의치 않고 다해 냈다. 그는 관계에서 은퇴한 뒤에도 그의 고향에 돌아와 지방산업 전체의 장으로 향토 개발에 심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야산에 과실나무를 심고 이왕에 심는것 수확이 있는 과실 유실수를 심게했다. 수확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했다. 그러던중 뜻하지 않은 병을 얻게 되고 좋은약은 다써보고 큰 병원도 찾아보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너무 서러워 말아라. 나이가 들었으니 죽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다만 아쉬운 일이 있다면 우리 향토개발에 활일이 많은데 다 못하고 가는 것이 좀 아쉬울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1972년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때 자손들은 부친을 물줄고 공기맑은 아산군 염치면 동정리에 그를 모셨다.

난 그분이 묘소를 지나갈 때마다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잘 다져놓은 우리 고장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어찌 소홀이 다룰수 있겠는가?